

활동지 구성 김다혜 제주 월랑초등학교 교사

"어쩌면 아주 멋진 걸 보게 될지도 몰라."
환상적인 자연 속에서 한 뼘 자라는 아이의 마음



달빛 조각

윤강미 그림책 | 창비 2021

엄마와 이모를 따라 숲으로 휴가를 오게 된 남매는 전자 기기만 들여다본다. 처음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하던 아이들이 숲속을 거니는 동안 가족과 대화하고 반딧불이를 발견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과정을 담은 그림책이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틈에 자연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좁혀 가는 것을 보면 주변에 사라져 가는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잠시 전자 기기를 내려놓고, 까만 그믐밤 아래의 동식물들과 눈을 맞추어 보면 좋겠다. 자연이 더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있기를 소망한다.



표지 살펴보기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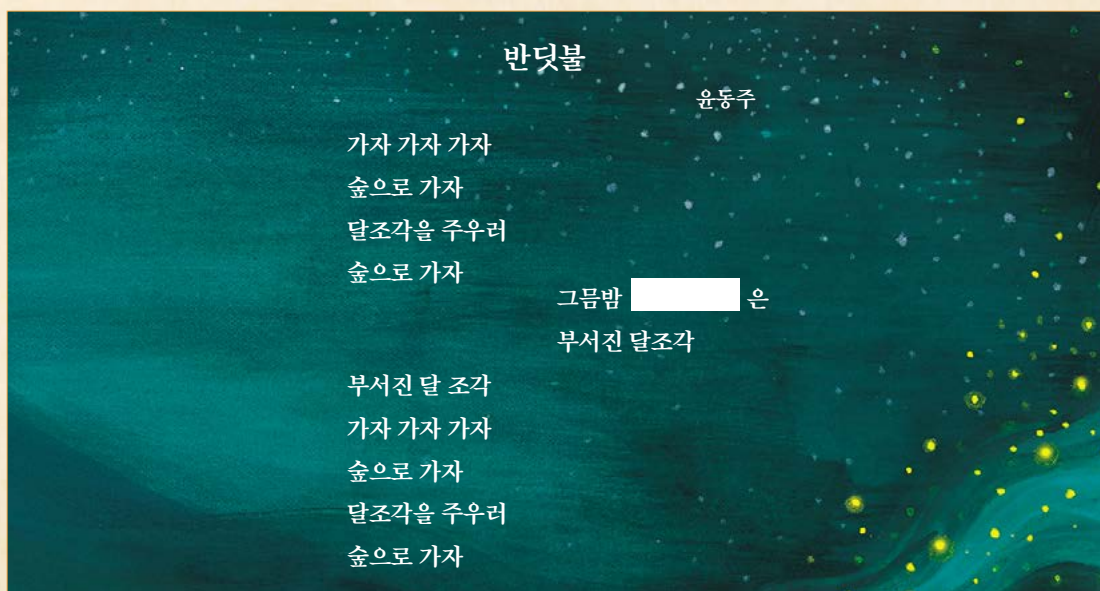
이름

표지를 자세히 살피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상해 봅시다.



- ◆ 등장인물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 ◆ 어두운 밤을 환히 비추는 작은 불빛들은 무엇일까요?
- ◆ 제목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써 봅시다.

윤강미 작가는 윤동주 시인의 동시 「반딧불」을 모티브 삼아 이 책을 지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예상해 봅시다.





구석구석 살펴보기

계절
여름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책의 배경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부터 깜깜한 밤까지의 시간입니다.
밤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찾아보고 이름과 특징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이름: 토끼

특징: 야산에 살며 밤에 나무껍질, 풀 따위를 갉아 먹는다.



이름: 고라니

특징: 울음소리가 사람이 비명 지르는 소리와 비슷하다.



이름: 부엉이

특징: 올빼미와 비슷해 보이지만, 눈이 크고 머리 꼭대기에 귀 모양 깃이 있다.



이름: 달맞이꽃

특징: 7월에 노란색 꽃이 피고,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오므라든다.



이름: 나방

특징: 나비와 비슷하지만, 몸이 꿀벌 처럼 통통하고 보송보송한 털로 덮여 있다.



소중한 자연을 지켜요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책 속에 고스란히 담긴 아름다운 반딧불이 떼는

오늘날 사라져 가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써 봅시다.

환경 오염, 기후 위기 등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 무엇을 지키고 싶나요?

☾ 보호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지키고 싶은 장면을 그려 보세요.